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음 7월 29일) 제18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탄소, 경제성 높다

KDI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조사 결과 B/C 분석서 1.55로 기준치 1.0 훌쩍 넘어서

전주시 신성장동력인 탄소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국가용역기관의 비용편익(B/C) 분석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여부를 따지는 B/C분석에서 기준치(1.0)를 훨씬 넘어선 1.55로 평가했다. B/C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를 좌우하는 만큼 이번 결과가 사실상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인정됐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B/C분석과 정책성, 수익성(P) 등에 대한 종합평가(AHP)

를 거쳐 기준치 0.5 이상으로 평가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주시의 경우, AHP평가의 핵심인 B/C분석에서 기준치인 1.0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정책성, 수익성보다도 1.0을 넘지 못한 B/C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시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탄소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집적화되고 연간 1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99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B/C 기준치에 근접한 0.97로 평가받고도 종합평가에서

0.446로 나옴에 따라, 산업 규모를 줄이고 입주가능 업종을 늘리는 등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재신청했다.

전주탄소소재 산업단지 조성 여부는 오는 12월께 KDI의 정책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인 평가를 받은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면서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본 취지를 살리고 산업이 국가의 지원 속에서 조성돼 탄소산업이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680억원을 들여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미 134개 기업이 입주희망을 제출한 상태이다. /김민근 기자



1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북도 한국형 공간정보 제작용 드론 발표회에 김승일 행정부지사, 이동희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최은희 도의원, 언론사 사장, 도내 대학총장 등과 관련 학과 대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해 드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4차 산업혁명 핵심 '드론' 전북발전 성장 동력으로

도, 한국형 공간정보 제작용 드론 발표회 성료 제작업체 기술개발·교수 연구사례 발표 등 진행

전북도는 18일, 전북도청에서 '한국형 공간정보 제작용 드론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대학총장,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도의원, 언론사 사장 등과 관련 학과 대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드론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보였다.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신정부 '대신성장 사업'으로 선정 되어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기존 기술 및 산업과 다양하게 융합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련 시장의 성장률을 연평균 15%로 예측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핵심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은 선진국 수준의 80%정도로 평가되며 전 세계 드론 시장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순수 한국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드론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드론 제작업체의

드론 기술개발현황과 대학 교수의 연구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면서 국내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기술의 높아진 수준을 보여주었고 비즈니스 미팅, 드론전시 등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드론에 관심 있는 많은 참석자들에게 참여의 기회와 불거리를 제공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발표회가 국내 드론 기술발전을 위해 산·학·관·연이 소통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며 드론분야를 전북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키워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발표회를 통해 뛰어난 토종 기술을 탑재한 드론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드론산업의 중심지로 가는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김진성 기자

식료품 공유로 음식쓰레기 절반 감소

물품과 공간 등을 나눠 쓰면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공유문화 확산에 나선 전주시가 남은 식료품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부와 육아여성 등의 물품을 가중반아 저가로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육아용품 나눔은행인 '전주카드뱅크' 사업도 전개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공유경제를 통한 반값 생활비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민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 결과,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시민들의 각양각색의 공유경제 비법 36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시민들은 주로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식생활과 재활용, 육아 등을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시는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1

전주시, 공유경제를 통한 반값 생활비 아이디어 선정

건과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 아이디어상 2건 총 10건의 시민 제안을 선정해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Grocery sharing'(식료품 공유)의 경우 식재료를 공유 앱을 개발해 남은 음식을 서로 공유하고, 혼자 밥을 먹는 1인 세대를 위한 파티를 추천하는 등의 사업이다. 식재료 공유 앱이 개발되면 1인 세대 간 소용 커뮤티가 형성되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은 캐쉬백시스템을 재활용 쓰레기에 도입하는 '도량도 치우고 가재도 잡고'와 사교육비 및 보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학생과 아동 부모와의 연결'이 차지했다. '도

량도 치우고 가재도 잡고'는 주민들이 재활용쓰레기를 공급하면 선정된 동네 고물상은 지역화폐인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대학생과 아동 부모와의 연결'은 공공기관 사이트에 대학생과 아이 부모를 매칭해주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대학생과 아이 부모 매칭과 비슷한 맥락으로, 육아여성 간 육아용품 공유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주카드뱅크(Kid bank)'가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다른 아이디어상 수상제안은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반값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 동네식당을 발굴하는 '나눔 맛집'이 차지했다.

이번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100만원과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아이디어상 1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김민근 기자

현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유지기로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가 낙마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는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재판관 1인 공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기로 의

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지난 3월 13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이후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부터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소장 공백 사태에도 현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웃어봐요! 치~즈~ 행복 쪽~~^^

즐거움과 함께하는 2017 임실N 치즈축제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추석	5	6	7
8	9	10	11	12	13	14

천만송이 국화전시, 전국어린이 요리경연대회, 제2회 전국어린이치즈창작동요대회, 전국 스타셰프 챌린지(최현석셰프), 국가대표 '왕'치즈피자, 치즈나라 치즈범벅 모자이크, 치즈떡볶이 나눔행사, 치즈 및 낙농체험, 국내·외 치즈전시관, 임실N치즈피자 등 다양한 치즈음식

주최 임실군 주관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www.imsilfestival.com 063. 643. 3900

2017 축제 보조금지원